

그림 여행



9월 16일

(Sixteenth of September c. 1956)

르네 마그리트 (Rene Magritte 1898 - 1967)

(종이에 구아슈와 흑연 60 cm x 50 cm  
미네아폴리스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벨기에 태생 초현실파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나무를 등장시켰다. 물론 상식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나무를 묘사했다. 이 그림에 대해 마그리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무는 땅에서 태양을 향해 자라며 행복의 이미지를 선사한다. 그 이미지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움직이면,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것은 나무이다. 마찬가지로, 나무는 의자, 테이블, 문 등의 형상으로 목격자가 되어 우리 삶의 혼란

스런 광경을 구경하게 된다. 나무가 관이 되면 땅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불이 붙어 타게 되면,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나무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피력한 위의 글처럼 이 그림은 잔잔한 이미지 속에 심상치 않은 문제를 제시한다. 하늘, 숲, 들판, 그리고 맨 앞의 잔디 순으로 멀고 가까움이 착실히 진행되어 오다가, 화면 중앙의 나무 속에 그려져 있는 초승달 때문에 그 원근법은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린다. 상식적으로 달은 나무 뒤 하늘에 그려져야 하는데 왜 나무 앞에 위치해 있을까?

이뿐만 아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왜 '9월 16일' 인가? 그 특정한 날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 날짜와 이 나무와 달 그림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마그리트는 '나는 그저 청회색의 저녁 속에 나무 위 달을 그렸다' 라고 시치미를 뚝 떼며 그림 속 미스터리 해결을 관객에게 미뤄 버렸다. 아무런 실마리를 갖지 못한 관객은 그림을 골똘히 들여다 보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 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것이 마그리트가 원하던 바라고 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물과 현상 속에 숨어 있는 부조리와 모순을 식별해 내고, 그로 인해 일상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려버리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사실은 아주 연약하고 위태로운 구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말이다.

조용하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그림이 갑자기 불안하고 부담스럽게 보이는데 어디선가 '9월 16일은 무작위로 그냥 붙인 제목이다' 라는 마그리트의 태연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김동백》



플러스 약국  
Pharmacy Plus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약사 황광진 Ken Hwang  
서울대 약대 졸업  
Doctor of Pharmacy

- + 무료배달
- + 건강 상담 환영
- + 저렴하고 빠른 처방조제
- + 각종 비타민



T. (714)956.3830

1012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라팔마 & 유클리드 명동칼국수 옆)

DDS SKIN & BODY  
HEALTHCARE

세계 최초 전기를 이용한  
DDS 안마기기 효능!

탁월한 디톡스로 체질개선, 산성→알카리성

그랜드 오픈닝 스페셜

다이어트/피부개선/체질개선  
최초1회 \$100 70%off 1회 \$30

Open Hours Mon~Fri: 9:00am~7:00pm  
Sat: 9:30am~4:00pm

Tel: 714-713-5922

5041 Ball Rd., Cypress, CA 90630

정순배 니트패션

니트 정장 맞춤 전문점

가을 스페셜 Sale

“오래된 니트  
최신형으로 수선 해드립니다”

- ◆ 최고급 이태리 실(원사)로만 사용함
- ◆ 여성니트 정장맞춤 전문점
- ◆ 결혼, 예단, 파티복, 드레스



T. 714.539.1450

8942 Garden Grove Blvd. #103  
Garden Grove, CA 92844

2QUICK  
한국택배

714.228.1111  
714.336.8944

8521 Roland St. #D Buena Park, CA 90621